글로벌 건강과 간호 제1권, 제2호, 2011년 7월
Global Health and Nursing Vol. 1, No. 2, 65-72, July, 2011

어머니의 취업과 초등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임나현[1] · 정인숙[2]

부산 해동고등학교 보건교사[1],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2]

Mother's Employmen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Primary School Students

Im, Na-Hyun[1] · Jeong, Ihn Sook[2]

[1]Teacher of Public Health Care, Haedong High School, [2]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health promotion behaviors (HPB) and the influence of mother's employment on the HPB of lower grade primary school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89 students (304 with employed mothers and 185 with unemployed mothers) in P city. Data were collected with HPM questionnaire on personal hygiene (7 items), eating habits (7 items), exercise (5 items), interest in their own health (3 items), and mental health (3 items), and analyzed with t tests and x^2 test at .05 of significant level. **Results:** Mean HPB score 2.68 (out of 5) for students with employed mothers and 2.90 for students with unemployed mothers, which was significant different (t=-6.94,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ating habits by mother's employment (employed 1.93 vs non-employed 2.42; t=-11.59, p<.001), 'interest in their own health' (employed 2.67 vs non-employed 3.05; t=-6.34, p<.001), and 'personal hygiene' (employed 3.04 vs non-employed 3.23; t=-3.27, p=.001). **Conclusion:** Mother's employment can influence the lower grade primary school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Further studies are needed after controlling the confounding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parent's attitude toward job and child-care, and presence of alternative manpower to take care of children for employed mothers.

Key Words: Employment, Health promotion, Primary school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발달이 왕성하며 습득된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로의 전환이 용이한 시기로, 이 때 경험하고 습득된 건강증진행위는 전 생애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건강증진행위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즉, 교사나 친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가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의 태도 및 습관 등은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며, 부모는 아동의 올바른 건강증진행위 습득을 위한 역할모델이 된다(최정욱, 2000). 부모의 양육방식, 사고방식, 교육관, 취업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최덕순, 1998), 특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나 취업은 아동의 건강관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며,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건강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Heins, Stillman, Sabers, & Mazzeo, 1983).

어머니의 취업은 학령후기 아동의 식습관의 차이를 가져

주요어: 복지서비스, 노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eong, Ihn Sook,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omeo-ri, Mulgeum-eup, Yangsan 626-870, Korea. Tel: 82-51-510-8342, Fax: 82-51-510-8308, E-mail: jeongis@pusan.ac.kr

- 이 논문은 제 1저자 임나현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1년 6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5일

오며(곽희령, 2005; 나희연, 2008; 오승희 등, 2010), 영양소의 섭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비취업모 가정의 유아들이 비교적 많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였다(지수민, 2006). 특히 10~12세의 학령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성격 등의 요인이 아동식이의 질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비만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향이, 2006). 학령후기 아동의 운동시간에 있어서도 취업모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더 적었으며, 하루 수면시간이 8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비취업모 아동이 취업모 아동보다 약간 더 많았고(오향이, 2006), 부모와 같이 생활할수록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이 높았다(하영신, 2007).

한편, 건강증진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최적의 기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화로운 관계형성, 규칙적 식사, 전문적인 건강관리, 위생적 생활, 자아조절, 정서적 지지, 건강식이, 휴식 및 수면, 운동 및 활동, 자아실현, 식이조절 등 다양한 영역이 고려될 수 있다(박인숙, 1995). 기존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이 식이, 운동, 수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파악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가 주로 학령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건강습관의 형성은 이 보다 어린 연령에서 시작됨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2008)의 여성취업률 발표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2007년 50.1%로 10.8% 상승하였고, 이 기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36.9%에서 49.9%로 상승하였다. 이는 남녀 교육수혜의 기회균등화가 점차로 확대되면서 여성도 대학교육으로 갖추어진 전문 능력을 사회에 유용하게 발휘하여 교육투자의 효용성을 제고시키려는 사회인식이 취업모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 이유라 할 수 있다(최덕순, 1998). 이처럼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이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영역을 개인위생, 식습관, 운동, 건강 관심도, 정신건강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초등학생 아동들의 건강증진행위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취업 특성을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한다.
- 취업모 아동과 비취업모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차이를 분석한다.

3. 용어정의

1) 취업

시간제 또는 완전고용형태로 임금을 받고 재택근무나 직장출근을 하는 것을 말하며(전병란, 2004),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또는 완전고용형태로 임금을 받고 직장출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행위

안녕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건강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한 동기화된 행동으로 대상자의 긍정적인 건강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를 말한다(Walker, Sechrist, & Pender, 1982).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김미남, 1997; 노태수와 박정숙, 1999)에서 사용된 건강행위실천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초등학생 저학년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내용 및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초등학생의 건강증진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293개 초등학교 중 임의로 선정된 4개 학교에서 표집한 2~3학년 학생으로, 학년당 3학급씩 총 24학급 600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이 중 조사에 응답한 자는 512명(90%)이었고, 취업모 아동 315명과 비취업모 아동 197명이었다. 이 중 최종 분석대상자는 응답의 질이 불량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489명이었으며, 취업모 아동 304명(96.5%,

304/315)과 비취업모 아동 189명(95.9%, 189/197)이었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학년, 학원 다니는 개수에 대한 3개 문항과 비만도, 간식해결, 수면시간에 대한 건강 관련특성 6문항을 포함한 총 9문항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에게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이 중 비만도는 표준체중(표준체중=(키-100)×0.9)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산출된 것으로,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20% 이상 30% 미만 무거운 경우 경도 비만, 30% 이상 50% 미만 무거운 경우 중등도 비만, 50% 이상 무거운 경우 고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2) 어머니 취업

취업모 아동용 설문지에는 어머니의 직업종류, 근무시간, 취업에 대한 생각에 대한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건강증진행위

김미남(1997)과 노태수와 박정숙(1999)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사용된 건강행위실천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다. 노태수와 박정숙(1999)의 연구에서는 개인위생 영역 9문항, 식습관 9문항, 운동 7문항, 정신건강 9문항의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위생 영역 7문항, 식습관 영역 7문항, 운동 영역 5문항, 건강관심도 영역 3문항, 정신건강 영역 5문항씩 총 27문항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에게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Likert 4점 측도로 측정하게 되고, 총점은 108점이다. 각 영역별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천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식습관 영역의 2번, 4번 문항과 정신건강 영역의 3번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노태수와 박정숙(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0이며, 사전 조사를 통한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5이며, 각 영역별에 따른 신뢰도 Cronbach's α로는 개인위생 영역 .82, 식습관 영역 .76, 운동 영역 .80, 건강관심도 영역 .74, 정신건강 영역 .76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과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시상의 주의점, 기재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에게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확인하여, 비취업모 아동에게는 비취업모 아동용 설문지를, 취업모 아동에게는 취업모 아동용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바로 수거하였다. 한편, 자료수집과정에서 대상자가 설문지 작성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임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수집된 자료는 기밀이 보장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은 .05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취업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증진행위의 관련성은 x^2-test와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분포는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52.4%이었고, 학년별로는 2학년 51.3%, 3학년 48.7%로 학년 또한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을 다니는 개수는 전체적으로는 '2~3개'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체중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동의 총 수면시간은 '6~9시간'이 73.6%이었다. 방과 후 간식해결은 '엄마나 할머니가 챙겨주신다'가 54.2%이었고, '엄마가 챙겨 놓으신 간식을 내가 챙겨먹는다'가 45.4%이었다(표 1). 한편, 취업모 아동과 비취업모 아동의 경우 성별, 학년, 학원 개수, 비만도, 수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간식섭취 방법에 있어 유의한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분류	전체 (n=489)	취업모 아동 (n=304)	비취업모 아동 (n=185)	x^2	p
		n (%)	n (%)	n (%)		
성별	남	233 (47.6)	145 (47.7)	88 (47.6)	0.01	.978
	여	256 (52.4)	159 (52.3)	97 (52.4)		
학년	2	251 (51.3)	157 (51.6)	94 (50.8)	0.03	.926
	3	238 (48.7)	147 (48.4)	91 (49.2)		
학원 수(개)	0	44 (9.0)	31 (0.2)	13 (7.0)	3.70	.296
	1	141 (28.8)	80 (26.3)	61 (33.0)		
	2~3	231 (47.2)	149 (49.0)	82 (44.3)		
	≥4	73 (14.9)	44 (14.5)	29 (15.7)		
비만도(%)	정상(<20)	440 (90.0)	274 (90.1)	166 (89.7)	0.02	.886
	비만(≥20)	49 (10.0)	30 (9.9)	19 (10.3)		
수면시간(시간)	< 6 또는 ≥10	129 (26.4)	75 (24.7)	54 (29.2)	1.21	.272
	6~9	360 (73.6)	229 (75.3)	131 (70.8)		
간식	엄마/할머니가 준비해 줌	265 (54.2)	121 (39.8)	144 (77.8)	67.31	<.001
	내가 챙겨 먹음	222 (45.4)	181 (59.6)	41 (22.2)		
	안 먹음	2 (0.4)	2 (0.6)	0 (0.0)		

이(x^2=67.31, p<.001)를 보였다.

2.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취업 특성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취업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직업은 사무직 58.5%로 가장 많았고,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은 '8시간 이상'이 78.3%이었으며, 어머니 취업에 대해 '돈을 벌어다 주셔서 좋다'가 28.9%이었으나, '나와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싫다'가 24.3%, '집에 아무도 없어서 싫다'가 18.4%, '숙제를 도와주지 않아서 싫다'가 13.5%, '혼자 밥을 먹어야 해서 싫다'가 10.2% 등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취업 특성

특성	구분	n (%)
어머니의 직업	사무직	177 (58.5)
	서비스직	101 (33.2)
	기타†	26 (8.3)
어머니의 근무시간(시간)	< 8	66 (21.7)
	≥ 8	238 (78.3)
취업에 대한 생각	돈을 벌어다 주셔서 좋다	85 (28.0)
	나와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싫다	74 (24.3)
	집에 아무도 없어서 싫다	56 (18.4)
	숙제를 도와주지 않아서 싫다	41 (13.5)
	혼자 밥을 먹어야 해서 싫다	31 (10.2)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17 (5.6)

† 운수직 2, 노동직 24.

3.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연구대상자의 평균 건강증진행위는 74.71점(100점 기준 69.2점)이었으며, 각 영역별 평균 점수로는 '개인위생' 21.81점(100점 기준 77.9점), '식습관' 14.82점(100점 기준 52.9점), '운동' 14.59점(100점 기준 73.0점), '건강관심도' 8.45점(100점 기준 70.4점), '정신건강' 15.02점(100점 기준 75.1점)으로 나타났다(표 3).

한편, 각 영역별 건강증진행위를 보면 '개인위생'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음'이 3.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속옷은 면으로 된 것을 입음'이 2.9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식습관'에서는 '과식하지 않음'이 2.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음'이 1.88점으로 가장 낮았다. '운동'에서는 '운동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함'이 2.64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관심도'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감'이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집은 건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함'이 2.45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신건강'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

표 3. 연구대상자의 영역별 건강증진행위

영역 (문항수)	가능범위	실제범위	M±SD	평균평점(M±SD)	평균에 대한 100점 환산점
개인위생 (7)	7~28	8~28	21.81±4.57	3.11±0.65	77.9
식습관 (7)	7~28	7~25	14.82±3.60	2.11±0.51	52.9
운동 (5)	5~20	5~20	14.59±4.06	2.91±0.81	73.0
건강 관심도 (3)	3~12	3~12	8.45±2.00	2.81±0.66	70.4
정신건강 (5)	5~20	5~20	15.02±3.08	3.00±0.61	75.1
계 (29)	29~108	43~101	74.71±9.96	2.76±0.36	69.2

하고 잠을 잘잠'이 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가 났을 때 푸는 방법이 있음'이 2.78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4).

4. 취업모 아동과 비취업모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취업모 아동과 비취업모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의 비교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취업모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합계 점수는 평균 72.37점, 비취업모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합계 점수는 평균 78.5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각 영역별 건강행위점수간의 분석결과, '개인위생'(t=-3.27, p=.001), '식습관'(t=-11.59, p<.001), '건강관심도'(t=-6.3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운동',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위생'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을 씻음'(t=-3.32, p=.001),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음'(t=3.70, p<.001), '하루에 3회 이상 이를 닦음'(t=-3.4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습관'에서는 '자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음'(t=-5.83, p<.001), '육류보다 야채류를 더 잘 먹음'(t=-3.02, p<.001), '아침식사(빵, 죽, 밥 포함)는 꼭 먹음'(t=-6.91, p<.001), '밥보다 간식을 더 많이 먹음'(t=-17.19, p<.001), '인스턴트 음식을 먹음'(t=-7.1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동'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걸어 다님'(t=-3.95,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관심도'에서는 '키와 몸무게의 변화에 관심이 있음'(t=-6.06, p<.001), '우리집은 건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함'(t=-6.2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건강'에서는 '화가 났을 때 푸는 방법이 있음'(t=3.04, p=.0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과 초등학생의 건강증진행위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의 취업이 초등학교 저학년(2, 3학년)의 건강증진 행위 영역 중 개인위생, 식습관, 건강 관심도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운동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 이후로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통계청, 2008).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이며, 이번 연구에서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통계자료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을 시간제 또는 완전고용형태로 임금을 받고 직장출근을 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취업과 비취업모 아동이 등교 시에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아동이 하교 시에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을 나가는 것에 대한 아동의 생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지만, '돈을 벌어줘서 좋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다'의 긍정적인 의견도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방과 후 과외 활동이 과거보다 많아지면서, 보다 다양한 취미, 과외 활동을 위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길 바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령기 아동들의 건강증진행위정도는 노태수와 박정숙(1999)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위생, 정신건강, 식습관, 운동의 순으로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위생, 정신건강, 운동, 건강 관심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식습관에 대한 건강증진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과

표 4.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구분	문항	전체 (n=489)	취업모 아동 (n=304)	비취업모 아동 (n=185)	t	*p*
		M±SD	M±SD	M±SD		
건강증진행위		2.76±0.36	2.68±0.32	2.90±0.39	-6.94	<.001
개인위생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음	3.32±0.91	3.22±0.94	3.50±0.84	-3.32	.001
	목욕은 일주일에 1회 이상함	3.20±0.98	3.18±0.99	3.23±0.98	-0.53	.600
	양말과 속옷은 매일 갈아입음	3.18±0.96	3.12±0.98	3.29±0.93	-1.87	.062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음	3.12±0.93	3.10±0.92	3.17±0.95	-0.83	.406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음	3.08±0.93	2.96±0.93	3.28±0.90	-3.70	<.001
	하루에 3회 이상 이를 닦음	2.98±0.98	2.86±1.10	3.17±0.95	-3.40	.001
	속옷은 면으로 된 것을 입음	2.93±1.12	2.86±1.10	3.04±1.14	-1.77	.078
	평균평점	3.11±0.65	3.04±0.63	3.23±0.65	-3.27	.001
식습관	과식하지 않음	2.54±1.22	2.53±1.21	2.57±1.23	-0.36	.718
	자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음	2.36±1.13	2.13±1.07	2.74±1.12	-5.83	<.001
	육류보다 야채류를 더 잘 먹음	2.14±0.95	2.04±0.91	2.31±0.99	-3.02	.003
	아침식사는(빵, 죽, 밥 포함) 꼭 먹음	2.00±1.12	1.73±1.01	2.44±1.15	-6.91	<.001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음	1.96±0.95	1.96±1.09	1.96±1.08	0.02	.987
	밥보다 간식을 더 많이 먹음†	1.94±0.95	1.46±0.66	2.72±0.84	-17.19	<.001
	인스턴트 음식을 먹음†	1.88±0.84	1.66±0.69	2.24±0.94	-7.13	<.001
	평균평점	2.11±0.51	1.93±0.47	2.42±0.43	-11.59	<.001
운동	운동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	3.22±1.04	3.18±1.07	3.28±0.99	-0.97	.331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걸어 다님	3.15±0.94	3.02±0.94	3.37±0.92	-3.95	<.001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운동함	2.81±1.15	2.80±1.14	2.84±1.16	-0.39	.697
	규칙적으로 1주일에 4회 이상함	2.77±1.12	2.75±1.12	2.79±1.11	-0.40	.687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함	2.64±1.16	2.63±1.16	2.67±1.16	-0.42	.677
	평균평점	2.91±0.81	2.87±0.78	2.98±0.85	-1.50	.134
건강관심도	아프면 병원에 감	3.42±0.87	3.44±0.84	3.38±0.92	0.74	.460
	키와 몸무게의 변화에 관심있음	2.58±1.15	2.35±1.12	2.97±1.10	-6.04	<.001
	우리집은 건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함	2.45±1.01	2.23±1.00	2.81±0.94	-6.29	<.001
	평균평점	2.81±0.66	2.67±0.63	3.05±0.65	-6.34	<.001
정신건강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잠을 잘잠	3.20±1.01	3.22±1.00	3.18±1.03	0.35	.724
	주위의 친구들과 자연스레 어울림	3.16±0.98	3.13±0.96	3.20±1.01	-0.75	.457
	조그만 일로 자주 화를 냄†	3.09±0.95	3.12±0.96	3.03±1.03	0.97	.333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협조를 구함	2.80±1.07	2.79±1.09	2.81±1.05	-0.21	.832
	화가 났을 때 푸는 방법이 있음	2.78±1.20	2.91±1.14	2.56±1.26	3.04	.002
	평균평점	3.00±0.61	3.03±0.61	2.95±0.62	1.32	.189

† 역환산 문항.

거에 비해 가정의 문화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취학 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손 씻기, 양치하기 등의 위생교육을 받았고, 현재 학교에서도 보건교육을 통해 계속 주지시킴으로써 개인위생의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식습관의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맞는 패스트푸드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학교 앞 아동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길거리 음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문항별로도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의 점수가 식습관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 비취업에 따라 아동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일반적 특성에서는 간식해결 부분이, 건강증진행위에서는 개인위생, 식습관, 건강 관심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방과 후 간식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의 물음에 거의 모든 아동들이 간식 섭취를 하고 있어, 이는 김석중(2000), 장성희(2005), 우현숙(2008)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한편, 취업 아동의 경우 '엄마가 돈을 주고

사먹으라 하신다'가 비취업모 아동에 비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주로 사먹는 음식으로는 과자, 음료수, 길거리 음식 등의 비위생적인 음식이 많아 취업모 아동들의 균형 잡힌 간식 섭취를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곽희령(2005), 나희연(2008), 오승희 등(2010)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학령후기 아동의 식습관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김미현(2008)과 지수민(2006) 등의 연구에서도 비취업모 가정일수록 평균 영양소 섭취가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식품 섭취를 보였으며, 장성희(2005)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침식사 빈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도 비취업모 대상자들의 야채 섭취 및 아침식사 이행도가 취업모 대상자 보다는 높아, 이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들의 식습관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모 아동들의 식습관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5가지의 건강증진행위 영역 중 식습관 영역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들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식습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위생과 건강 관심도 영역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으나 취업모 아동들의 점수가 비취업모 아동들의 점수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취업률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증가추세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보건교사는 취업모 아동들의 식습관, 개인위생 및 건강관심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취업모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만도, 정신건강, 운동영역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수민(2006)의 연구에 의하면 비취업모 아동의 체지방률이 취업모 아동의 체지방률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오육자(2006), 최홍식(2003)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석(1993), 윤종기(1996)는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불안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의 정신건강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10년이 넘은 연구결과로 현재의 상황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미 어머니의 취업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기에, 정신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은 단순하게 어머니의 취업여부보다는 취업에 의한 경제적 수준, 가정 내 분위기,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도 등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으므로(김희수, 2003)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운동영역에서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과외활동이 생겨나, 방과 후 태권도나 무용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학원에 다니면서 절대적인 운동량이 아닌 신체활동의 여부에 의함이므로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 외에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못했다. 둘째, 어머니가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가정 내 아버지, 할머니, 친척, 가사 도우미 등의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은 아동의 입장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어머니의 취업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의 아동들이 취업한 어머니의 아동들보다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의해서만 아동의 건강증진행위를 분석하였으나 어머니가 취업을 하였지만 가정 내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집을 자주 비우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취업 뿐 아니라 가정 내 어머니의 재가정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 해 보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곽희령(20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식습관.**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김미남(1997). **보건교육이 초등학교 아동의 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미현(2008). **경제수준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의 식행동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석중(2000).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생활 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충청남도 공주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천안.

김희수(2003).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나희연(2008).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초등학생의 식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노태수, 박정숙(1999). 건강증진교육이 초등학교 아동의 건강행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 38**(1), 87-98.

박인숙(1995).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부산.

오승희, 현화진, 이홍미, 박혜련, 임현진, 송경희(2010).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스트레스와 식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5**(4), 498-506.

오향이(2006).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학동의 비만실태 및 요인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

우현숙(2008). **중소도시 초등학생의 간식 영양관리 방안 설정을 위한 양주시 초등학생의 간식섭취 실태 조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윤종기(1996). **취업모 자녀와 비취업모 자녀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비교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울산.

이중석(1993). **10대의 정신병리(中).** 서울: 대교출판사.

장성희(2005). **초등학생의 간식섭취 실태와 어머니 인식도 조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병란(2004).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아동의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산.

지수민(2006).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아의 건강실태 조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최덕순(1998).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와 불안과의 관계. **아동교육, 7**(2), 182-192.

통계청(2008). 여성취업률. www.nso.go.kr

하영신(2007).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Heins, M., Stillman, P., Sabers, D., & Mazzeo, J. (1983). Attitudes of pediatricians toward maternal employment. *Pediatrics, 72*(3), 283-290.

Walker, S. N., Sechrist, K. R., & Pender, N. J. (1987).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Nursing Research, 36*(2), 76-81.